

2017. 06. 26. ~ 2017. 07. 02. 주간

142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 무 · 양배추 재배의향 및 가격 전망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나주시, 마한농협 『햇살 좋은 쌀』 미국 식탁 오른다
- 신안군, 해풍맞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 길 오른다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올 여름엔 새로운 과일 『플럼코트』 맛보세요

정책동향

- 전남도, 양배추 추대 피해 복구비 12억 지원
- 전남도, 가뭄 대책 특별교부세 58억 추가 확보

사업신청 및 홍보

- 2017국제농업박람회를 소개합니다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총 4종 발간



전남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6~10일까지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0~22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6~20mm)보다 많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9

- ▶ 주의보 : 멸강나방, 바이러스병,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 ▶ 예 보 : 사과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 탄저병 등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10

- ▶ 배추·무·양배추 재배의향 및 가격전망
-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나주시, 마한농협 『햇살 좋은 쌀』 미국 식탁 오른다
- ▶ 신안군, 해풍맞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 길 오른다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4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6

- ▶ 토마토(헤이-존)
- ▶ 갈색날개매미충 알 방제적기와 방제약제 종류
- ▶ 풋고추 바실러스 혼합 처리 방법
- ▶ e-비즈니스 교육내용의 농장경영 실천정도에 따른 경영성과
- ▶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 파프리카, 스마트팜 고도화로 생육 및 수확량 예측 가능해진다
- ▶ 아열대 과실 비파 신품종 『진왕』에 농가 관심 집중
- ▶ 올 여름엔 새로운 과일 『플럼코트』 맛보세요
- ▶ 배 석세포로 미세플라스틱 대체한다
- ▶ 젖소 더위 스트레스 해결하는 영양제 나왔다
- ▶ 집중호우, 축사와 가축분뇨 관리 요령 제시

7. 정책 동향 30

- ▶ 전남도, 양배추 추대 피해 복구비 12억 지원
- ▶ 전남도, 가뭄 대책 특별교부세 58억 추가 확보
-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 ▶ 농식품 통신판매, 민관 합동 부정 유통 감시단 출범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4

- ▶ 여수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 담양군, 생으로 먹는 단옥수수 『고당옥』 신소득작목 육성
- ▶ 곡성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교육 실시
- ▶ 화순군, 명품농산물 생산 찾아가는 영농교육 성황
- ▶ 영암군, 친환경 축산을 위한 조사료용 청보리 종자 매입
- ▶ 무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용 대폭 경감키로
- ▶ 함평군, 광명시 광명동굴 『복분자와인』 입점 업무협약 체결
- ▶ 영광군, 신소득원 『백(白)초당옥수수』 수확이 한창

9. 해외 농업정보 42

- ▶ 수출용 우량 감자 신품종 공동평가로 수출산업 활로 연다
- ▶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마늘 규제시행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7. 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미국과 캐나다의 봄밀 작황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면서,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며 전일대비 6.4% 상승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대두 선물 가격의 흐름을 따라 약 3%의 상승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약 3%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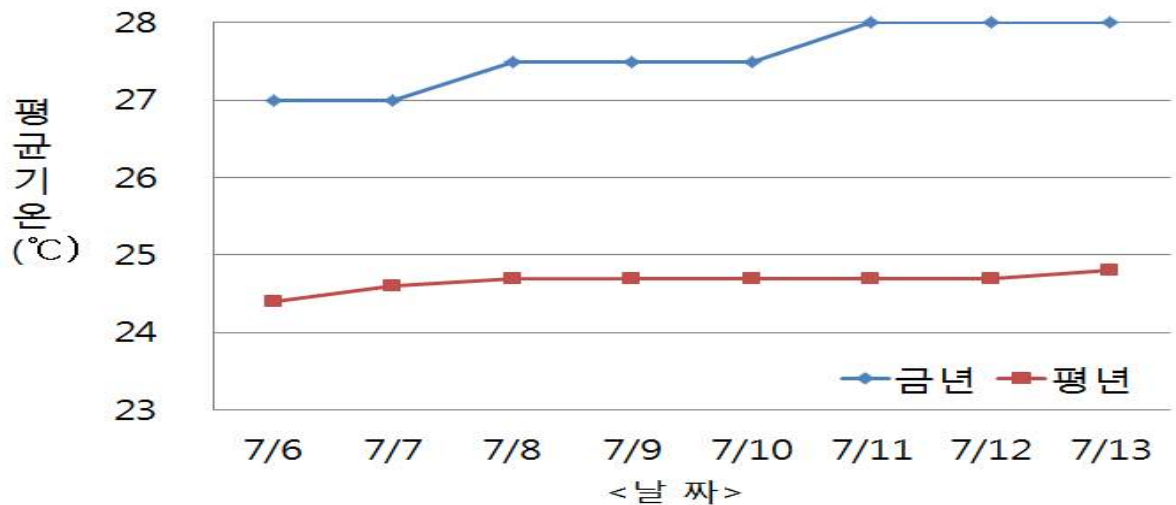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 ▶ 2017국제농업박람회를 소개합니다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총 4종 발간
- ▶ 작은 더위, 소서(小暑)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7월 6일~7월 13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7.6℃ (평년대비 2.9℃ 높음)
- 최고기온 : 31.1℃ (평년대비 2.6℃ 높음)
- 최저기온 : 24.0℃ (평년대비 2.2℃ 높음)
- 강 수 량 : 13.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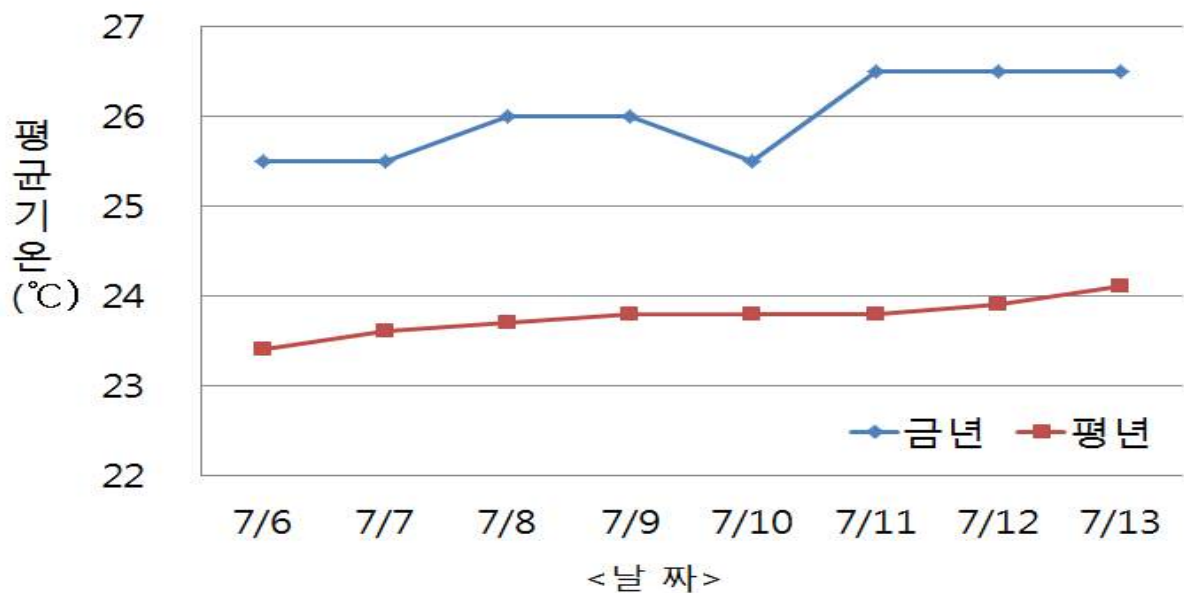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6	24.7	2.9	31.1	28.6	2.6	24.0	21.8	2.2	13.7
7. 06.(목)	27.0	24.4	2.6	30.0	28.6	1.4	24.0	21.3	2.7	8.1
7. 07.(금)	27.0	24.6	2.4	30.0	28.8	1.2	24.0	21.5	2.5	8.7
7. 08.(토)	27.5	24.7	2.8	31.0	28.8	2.2	24.0	21.7	2.3	8.8
7. 09.(일)	27.5	24.7	2.8	31.0	28.6	2.4	24.0	21.8	2.2	13.7
7. 10.(월)	27.5	24.7	2.8	31.0	28.4	2.6	24.0	21.8	2.2	15.4
7. 11.(화)	28.0	24.7	3.3	32.0	28.4	3.6	24.0	21.9	2.1	17.0
7. 12.(수)	28.0	24.7	3.3	32.0	28.4	3.6	24.0	22.0	2.0	18.0
7. 13.(목)	28.0	24.8	3.2	32.0	28.5	3.5	24.0	22.1	1.9	19.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7월 6일~7월 13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6.0℃ (평년대비 2.6℃ 높음)
- 최고기온 : 28.1℃ (평년대비 1.0℃ 높음)
- 최저기온 : 23.9℃ (평년대비 2.5℃ 높음)
- 강 수 량 : 10.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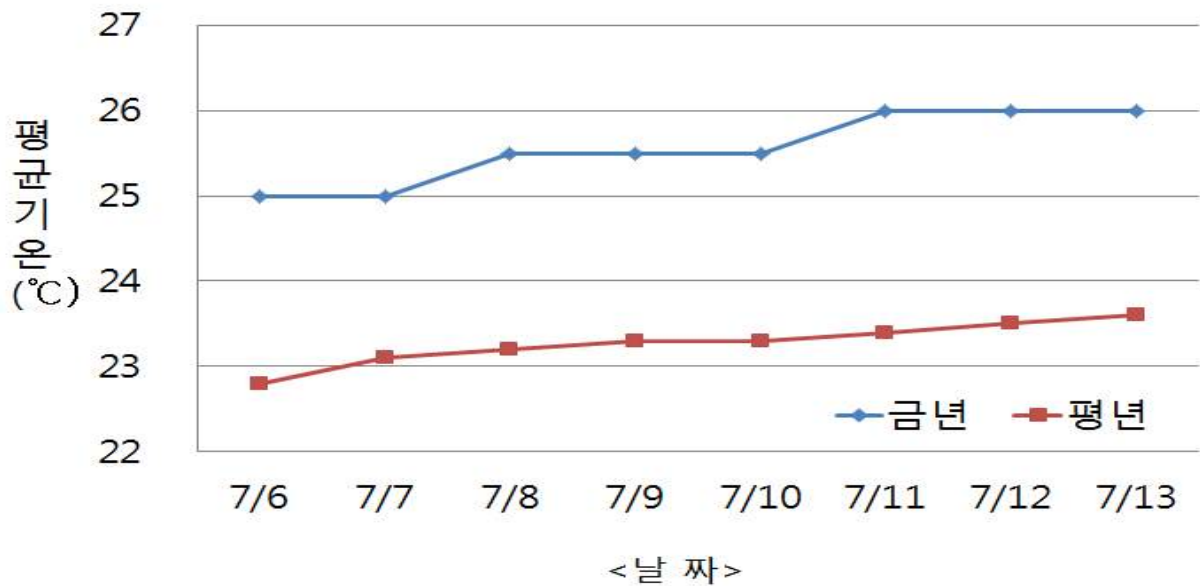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6.0	23.8	2.6	28.1	27.1	1.0	23.9	21.4	2.5	10.4
7. 06.(목)	25.5	23.4	5.0	27.0	26.9	0.1	24.0	20.9	3.1	7.2
7. 07.(금)	25.5	23.6	1.9	27.0	27.1	-0.1	24.0	21.0	3.0	6.5
7. 08.(토)	26.0	23.7	2.3	28.0	27.1	0.9	24.0	21.3	2.7	6.6
7. 09.(일)	26.0	23.8	2.2	28.0	27.0	1.0	24.0	21.5	2.5	10.8
7. 10.(월)	25.5	23.8	1.7	28.0	26.9	1.1	23.0	21.5	1.5	11.0
7. 11.(화)	26.5	23.8	2.7	29.0	27.1	1.9	24.0	21.6	2.4	11.9
7. 12.(수)	26.5	23.9	2.6	29.0	27.2	1.8	24.0	21.7	2.3	13.3
7. 13.(목)	26.5	24.1	2.4	29.0	27.4	1.6	24.0	21.8	2.2	15.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7월 6일~7월 13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5.6℃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27.3℃ (평년대비 1.2℃ 높음)
- 최저기온 : 23.9℃ (평년대비 2.6℃ 높음)
- 강 수 량 : 11.7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5.6	23.3	2.3	27.3	26.0	1.2	23.9	21.3	2.6	11.7
7. 06.(목)	25.0	22.8	2.2	26.0	25.7	0.3	24.0	20.8	3.2	10.0
7. 07.(금)	25.0	23.1	1.9	26.0	26.0	0.0	24.0	21.0	3.0	9.1
7. 08.(토)	25.5	23.2	2.3	27.0	26.0	1.0	24.0	21.2	2.8	10.2
7. 09.(일)	25.5	23.3	2.2	27.0	26.0	1.0	24.0	21.3	2.7	12.9
7. 10.(월)	25.5	23.3	2.2	28.0	26.0	2.0	23.0	21.4	1.6	12.0
7. 11.(화)	26.0	23.4	2.6	28.0	26.1	1.9	24.0	21.5	2.5	12.4
7. 12.(수)	26.0	23.5	2.5	28.0	26.1	1.9	24.0	21.6	2.4	13.1
7. 13.(목)	26.0	23.6	2.4	28.0	26.2	1.8	24.0	21.8	2.2	13.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출처 : 기상청

■ 시군별 강우량

(2017. 07. 03. 08시 현재/단위 : mm)

구 분	6.30.부터 7. 1.까지	7. 2.	7. 3.	누 계	비 고 (비가 많이온 지점)
평 균	3.4	2.9	1.2	7.5	
최 고	13.0	9.8	10.5	18.3	옥과 23.5
	화 순	곡 성	장 성	나주곡성장성	
최 저	0.0	0.1	0.0	0.2	목포 0.3
	목 포	여 수	-	여 수	
목 포	0.0	0.3	0.0	0.3	목포 0.3
여 수	0.1	0.1	0.0	0.2	돌산 0.5
순 천	1.5	4.6	0.0	6.1	황전 8.0
나 주	10.3	7.5	0.5	18.3	나주 21.5
광 양	0.8	3.3	0.0	4.1	백운산 8.0
담 양	3.0	8.5	0.0	11.5	담양 14.0
곡 성	8.5	9.8	0.0	18.3	옥과 23.5
구 레	12.7	2.3	0.0	15	성삼재 19.0
고 흥	0.0	0.5	0.0	0.5	도양 1.5
보 성	0.9	1.9	0.0	2.8	보성군 4.0
화 순	13.0	2.0	0.5	15.5	화순북 21.5
장 흥	3.3	2.0	0.0	5.3	유치 14.0
강 진	4.8	1.8	0.0	6.6	성전 12.0
해 남	0.4	0.3	0.2	0.9	북일 2.0
영 암	6.8	4.2	1.5	12.5	시종 15.0
무 안	1.1	0.7	5.0	6.8	전남도청 3.5
함 평	2.5	5.5	3.5	11.5	월야 9.5
영 광	0.8	2.0	3.0	5.8	영광군 5.0
장 성	2.5	5.3	10.5	18.3	장성 12.5
완 도	0.2	0.1	0.0	0.3	신지도 0.5
진 도	1.3	0.1	0.0	1.4	의신 2.0
신 안	1.1	0.3	3.0	4.4	지도 2.5
광 주	5.9	11.6	4.2	21.7	조선대 41.5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07. 01. ~ 07. 15.)

농촌진흥청은 멸강나방, 채소류의 바이러스병, 과수의 갈색날개매미충, 응애류, 진딧물류 등 돌발해충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오니 장마기간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멸강나방

- 벼·옥수수 등 기주작물 예찰 철저, 유충 발견 시 초기에 방제

□ 주의보 : 바이러스병(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등)

- 총채벌레, 진딧물류, 가루이류 등 매개충 증가로 바이러스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매개충 사전 방제 철저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진딧물류

- 일부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찰·방제 철저

□ 주의보 :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외부로 유출금지, 의심 증상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

□ 예보 : 사과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 탄저병, 복숭아 세균구멍병 등

-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

□ 예보 : 과수 잎말이나방류, 깍지벌레류, 노린재류 등

- 정밀예찰 실시하여 발생초기 적기방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 무 · 양배추 재배의향 및 가격전망

□ 고랭지 및 가을배추·무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증가

- 고랭지 재배(의향)은 감자, 특용작물(더덕·인삼) 등에서 작목이 전환되면서 작년보다 6~9% 증가
- 가을배추·무 재배의향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3~7% 증가하나, 가을양배추는 소폭 감소
- 2017년 엽근채류 고랭지 및 가을 작형 재배(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고랭지	6	8.7	6.4
가을	7.4	4	-1.3

□ 7월 가격 전망 : 배추는 작년보다 낮고, 무는 높을 전망, 수급 매뉴얼 상 『안정』 단계

- 배추는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10kg 당 5,500원 내외 전망
- 무는 노지봄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18kg 당 11,000원 내외 전망
- 당근은 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20kg 당 26,000원 내외 전망
- 양배추는 노지봄과 준고랭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8kg당 3,500원 내외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축사육 및 수급 동향

□ 한육우 : 7~8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거세우 출하물량의 증가로 7~8월 도축은 전년보다 1.8% 내외 증가
- 전년대비 한우 도매가격의 약세로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수준 전망
- 7~8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약세 전망

□ 돼지 : 7월 돼지고기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증가 전망

- 모돈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7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 동월(122만 마리)보다 증가한 124만 마리로 전망
- 국내 돼지 지육가격이 상승하여 7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2만 7천톤 내외로 전망
-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7월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9만 4천톤으로 전망
- 7월 돼지 지육가격 탕박 기준 kg당 평균 5,100~5,400원 전망

□ 육계 : 7월 닭고기 공급량 전년 동월보다 감소 전망

- 병아리 생산 감소로 7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10,435만 마리 전망
- 냉동 비축물량 전년대비 39.6% 감소한 624만 마리
-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7,000톤 내외 전망
- 7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kg 당 1,500~1,700원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나주시, 마한농협 『햇살 좋은 쌀』 미국 식탁 오른다

- 나주시가 마한농협 쌀 브랜드인 『햇살 좋은 쌀』을 미국 LA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 나주시는 2015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산 쌀 수출 전면 자유화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산 쌀의 해외시장 진출을 타진한 결과, 미국 LA 코리아타운 소재 한인 마트인 한남체인에 햇살 좋은 쌀 5톤(700만원 상당)을 7월 2일부터 수출할 예정이다. 동강농협 『드림생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수출 성과를 거두게 됐다.
- 관내 최고의 고품질 쌀로 손꼽히는 마한농협 햇살 좋은 쌀은 농업회사법인(주)골든힐(대표 한문철)을 통해 LA 한남체인 내 전라남도 농·특산물판매장 코너에 진열될 예정이며, 2016년 뉴욕·텍사스주 등에 수출된 동강농협 『드림생미』에 이어, 교포와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주시는 앞으로도 농협·수출업체·전라남도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쌀을 생산하는 등 단발성 실적이 아닌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출처 : 나주시



■ 신안군, 해풍맞은 『신안 단호박』 일본 수출 길 오르다

- 전남 신안군 청정지역 게르마늄 토질에서 해풍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좋은 단호박 120톤을 일본에 수출한다.
- 신안에서 생산된 단호박은 수출대행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4월에 34ha를 정식하여 6월에 300톤을 생산했다. 그중 120톤은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180톤은 내수 판매를 통해 2억 4천만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된다.
- 청정해역으로 잘 알려진 신안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단호박은 비타민 B와 C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칼슘·무기염류·당질이 풍부하며 항암효과, 노화방지, 변비 등에 좋은 웰빙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크게 알려져 국내 소비자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 신안군 유재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수출 단호박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생력농기계화 등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신안군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7. 0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03)	1주일전 (06/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1,900	31,800	31,800	36,200	41,467	↓ 11.9	↓ 23.1
	콩(백태)	35kg	170,800	170,800	170,600	150,000	162,800	↑ 13.9	↑ 4.9
	고구마(밤)	10kg	32,000	29,600	26,800	26,400	32,320	↑ 21.2	↓ 1.0
	감자(수미)	20kg	30,800	29,000	37,100	19,650	21,990	↑ 56.7	↑ 40.1
채 소 류	배추(봄)	1kg	600	550	425	583	621	↑ 2.9	↓ 3.4
	양배추	10kg	4,500	3,700	3,905	6,325	5,982	↓ 28.9	↓ 24.8
	오이(다다기계통)	10kg	19,000	13,333	10,833	16,250	15,039	↑ 16.9	↑ 26.3
	애호박	8kg	14,800	11,000	9,850	11,750	10,863	↑ 26.0	↑ 36.2
	건고추(화건)	60kg	612,000	590,000	546,000	710,000	778,667	↓ 13.8	↓ 21.4
	풋고추	10kg	41,400	39,200	47,950	42,600	34,547	↓ 2.8	↑ 19.8
	마늘(깐마늘)	20kg	129,000	129,000	132,800	167,500	109,507	↓ 23.0	↑ 17.8
	양파	20kg	22,800	21,200	20,250	13,900	15,727	↑ 64.0	↑ 45.0
	당근	20kg	30,000	31,200	33,600	30,500	31,667	↓ 1.6	↓ 5.3
	대파	1kg	1,450	1,290	1,490	1,695	1,732	↓ 14.5	↓ 16.3
	파프리카	5kg	14,600	13,600	19,100	13,750	16,240	↑ 6.2	↓ 10.1
	참외	10kg	24,000	29,400	35,400	26,650	28,327	↓ 9.9	↓ 15.3
	토마토	10kg	15,800	17,600	19,250	13,250	15,133	↑ 19.2	↑ 4.4
	방울토마토	5kg	14,000	15,800	17,800	11,700	11,560	↑ 19.7	↑ 21.1
	수박	1개	14,600	16,600	15,350	14,300	13,767	↑ 2.1	↑ 6.1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40,600	39,000	39,000	38,000	51,156	↑ 6.8	↓ 20.6
	배(신고)	15kg	57,200	51,600	46,050	46,000	54,093	↑ 24.3	↑ 5.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03)	1주일전 (06/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작물	참깨(백색)	30kg	521,000	521,000	521,000	536,000	553,000	↓ 2.8	↓ 5.8
	느타리버섯	2kg	13,000	12,800	11,700	14,950	14,007	↓ 13.0	↓ 7.2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7,600	7,800	7,760	-	↑ 0.5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70	7,842	7,673	7,813	6,608	↓ 0.6	↑ 17.6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53	2,332	2,082	2,282	2,090	↑ 3.1	↑ 12.6
	닭고기	1kg	5,327	5,527	5,912	5,373	5,571	↓ 0.9	↓ 4.4
	계란(특란)	30개	8,019	7,991	7,853	5,378	5,435	↑ 49.1	↑ 47.5
	우유	1리터	2,527	2,527	2,527	2,549	2,479	↓ 0.9	↑ 1.9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7. 0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209 천원	5,365 천원	5,972 천원	↓ 2.9	↓ 12.8
	거세	6,588 "	6,442 "	7,406 "	↑ 2.3	↓ 11.0
송아지 (6~7월)	암	3,154 "	3,121 "	3,255 "	↑ 1.1	↓ 3.1
	수	3,980 "	3,992 "	4,018 "	↓ 0.3	↓ 0.9
육우(600Kg)		2,498 "	2,523 "	3,410 "	↓ 1.0	↓ 26.7
젖소수송아지(7일령)		161 "	175 "	384 "	↓ 8.0	↓ 58.1
돼지(110kg)		473 "	471 "	461 "	↑ 0.4	↑ 2.6
육계(원/kg)		1,365 원	1,271 원	1,535 원	↑ 7.4	↓ 11.1
계란(원/특란10개)		2,095 "	2,093 "	984 "	↑ 0.1	↑ 112.9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토마토(헤이-존)

□ 품종 주요특성

- 초세가 안정되어 있고 무한형태로 숙기가 비교적 빠름
- 과형은 대추형 검붉은색으로 착과가 균일함
 - 과중은 15g 정도이며, 1화방 당 10개 내외 착과
- 중간모본 및 생식용으로 항산화물질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음

□ 적응지역 : 전국(시설재배)

□ 재배상 유의점

- 저온기에는 하우스 내 주·야간 온도 차가 심할 경우에는 잎곰팡이 발병이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착과는 수정벌을 이용하여 착과시키고 가급적 생장호르몬 착과제는 피한다.
- 검정토마토 검붉은색의 색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초세가 강하고 비분이 충분히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서종분



【육성품종 과실비교(2016)】

갈색날개매미충 알 방제적기와 방제약제 종류

배경 및 필요성

- 갈색날개매미충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 산림해충임
 - 발생면적 : 전국('13) 718 → ('15) 6,958ha / 전남('13) 314 → ('16) 1,627ha
- 갈색날개매미충은 과수와 수목의 가지 속에 산란된 알로 월동하여 부화하므로 주로 부화약충과 성충을 대상으로 방제
- 과수원 전정 시 산란가지를 제거하여 방제할 수 있으나 산란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방제에 한계가 있음

영농기술·정보 내용

- 갈색날개매미충 월동 중인 알 방제를 위한 방제적기와 방제약제 종류
 - 방제적기 : 3월 상순
 - 과 수 원 : 기계유유제 10배액 살포시 97% 방제
 - 조경수, 산림 : 클로르피리포스수화제 500배액 살포 시 93% 방제



【3월 상순 약제처리】



【죽은 알】



【살아있는 알】

기대 및 파급효과

- 새순이 돋아나기 전인 3월 상순에 산란가지 위주로 방제하므로 방제 소요약량 및 방제 노동력 절감 50%
- 약충과 성충의 피해를 받지 않고 방제회수 경감(3 → 1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마경철, 김효정, 이진희

■ 풋고추 바실러스 혼합 처리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풋고추 생육촉진 유용미생물 *Bacillus methylotrophicus* (KACC 91953P)와 *Bacillus vaillismortis*(KCTC 11991BP)의 현장적용 매뉴얼 개발
- 유용 농업미생물에 대한 친환경 농업인들의 수요증가에 따른 미생물제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시급
 - 작목별·용도별 맞춤형 유용미생물 효과검증 및 현장적용 매뉴얼 개발

□ 영농기술·정보 내용

- 고추 정식 2주 후부터 *B. methylotrophicus*와 *B. vaillismortis*를 1:1로 혼합하여 7일 간격으로 4회 토양 관주 처리
 - 농업미생물 처리농도 : 1×10^7 cfu/ml
 - 농업미생물 처리량 : 1회당 1.1톤/10a
- ※ *B. methylotrophicus*와 *B. vaillismortis* 균주는 농촌진흥청에서 무상 기술 이전하여 활용 가능

□ 기대 및 파급효과

- 농업미생물 KACC91953P과 KCTC 11991BP 희석액을 고추 생육기에 7일 간격으로 4회 토양관주 시 무처리구에 비해 10a당 448천원 추가 소득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신길호, 김선국, 양승구, 서운원, 김희권

■ e-비즈니스 교육내용의 농장경영 실천정도에 따른 경영성과

□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인들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은 후 실천정도에 따라 경영성과는 달라지므로 교육 후 실천에 따른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제시

□ 영농기술· 정보 내용

- e-비즈니스 교육내용을 농장경영에 대한 적용한 실천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경영성과 차이(%)는 SNS활용 1.78, 패키지 1.19, 농산물가공관련법률 1.2, 사업계획서작성 1.14, 마케팅 0.97, 브랜드관리 0.9점 순임
 - 경영성과는 고객들과 소통, 시장 세분화 능력, 상품 디자인 고급화 능력 등 25개의 항목을 리커도 척도 5점으로 측정
- e-Biz 분야 교과목 중에서 농가소득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은 농산물 가공관련 법률, 농업회계프로그램, 농산물 전자상거래 법률, SNS활용, 사업계획서 등의 순
- 향후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SNS활용, 브랜드관리, 마케팅, 패키지 활용 순

□ 기대 및 파급효과

- 농업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자료제공으로 실천력 강화
- 농업인들이 수강한 교육내용을 농장경영에 반영하는 실천정도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효과 제고 및 소득증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손장환, 조동호, 박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꼬를 낮추고, 밭작물은 배수로 정비 -

- 장마전선과 북상하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작물 관리요령을 긴급히 발표하고, 사전·사후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벼

- 많은 비로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꼬를 낮추어 주고, 물에 잠긴 벼는 신속하게 벼 앞의 끝만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 준다.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갈아주어 뿌리의 활력을 높여 준다.
- 논두렁과 하천 제방 등을 점검 정비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 밭작물

- 고추·수박·참깨 등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고추는 지주를 손질하여 쓰러짐을 막아준다.
- 밭작물이 침수되었을 때는 서둘러 물을 빼 주고, 고추 등 쓰러진 작물은 비가 갠 후 신속하게 세워주며 역병, 탄저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 과수

- 과수원은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손질해 주며, 새로 조성한 과수원의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에는 비닐, 부직포 등을 덮어 준다.
- 또한 강한 바람에 의하여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 주고, 저수고 밀식재배 과원은 철선 지주의 당김 상태와 포도 덩 등을 점검·보완한다.

□ 시설하우스

-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변 배수구를 정비해 주고, 비닐하우스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해 준다.

□ 축산

-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와 과습에 대비하여 축사 내 환풍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파프리카, 스마트팜 고도화로 생육 및 수확량 예측 가능해진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온실상황, 생육 및 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파프리카 생산온실의 내·외부환경, 생육변화량, 수확량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변화에 따른 생육 및 수확량, 소요노동력, 자원투입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다.
- 식물은 광·온도·물·무기양분 등 여러 환경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최근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식물의 생육 및 수확량은 위와 같은 다양한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생육환경조건을 알고 이에 따른 식물의 발달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식물 생육 뿐만 아니라 수확량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 예측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추세분석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생육을 예측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환경조건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조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생산단지의 예상 생산량이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부기관에 전달된다며 이 예상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및 내수물량 조절이 가능해져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경영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더불어 시설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생육량 예측은 순집기, 유인작업, 병해충 예방용 천적 투입, 소요 난방연료량 등 재배자가 소요되는 인력, 자재, 연료량 등을 보다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아열대 과실 비파 신품종 『진왕』에 농가 관심 집중

- 크고 단단한 비파 신품종 『진왕』 현장평가회 성황리 개최 -

- 전남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에서 개발한 아열대 과수 비파 신품종 『진왕』의 농가 현장평가회가 6월 22일 장흥 조흥농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현장평가회에 소개된 비파 『진왕』 품종은 열매 무게가 46g 정도로 크고 육질이 단단해서 유통력 좋은 대과종이다. 나무는 수세가 강해서 위로 자라는 성질이 있고, 수확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으로 늦은 편이다. 또한 비파는 씨가 커서 먹을 수 있는 부위의 비율(가식비율)이 높을수록 좋은데 진왕은 가식 비율이 70%로 높은 장점이 있다.
- 『진왕』은 2012년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되어 현재 장흥·완도·여수 등 남해안의 따뜻한 지역에 보급되었으며 초기에 접목한 농가에서 수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파 재배 농업인, 농협,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비파 『진왕』의 보급 확대를 희망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올 여름엔 새로운 과일 『플럼코트』 맛보세요

- 『하모니』 품종 전국 대형마트로 유통... 26일 전남 나주에서 평가회 열어 -
- 자두와 살구의 중간교잡으로 탄생한 새로운 과일 플럼코트
『하모니』 품종이 올해 약 60여톤이 수확돼 전국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플럼코트(plumcot)는 자두의 『플럼(plum)』과 살구의 『애플리코트(apricot)』의 영문 글자를 따서 이름 지어진 새로운 과종으로,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상큼한 향기로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 또한, 두 과종의 장점을 고루 이어 받아 살구의 고기능성과 자두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 살구는 베타카로틴 녹황색 채소와 과일, 조류에 많이 함유된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 유해산소 예방, 피부 건강 유지에 좋음
- 이 다른 과일에 비해 무려 20~30배 이상 많다. 자두는 물 빠짐이 나쁜 토양 등 불리한 재배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플럼코트 『하모니』 품종의 현장평가회를 6월 26일 전남 나주시 재배농가에서 열었다.
- 이번 평가회는 플럼코트 재배 농업인(예정자), 유통업체, 종묘업체 등이 참석해 플럼코트 재배 시 유의사항과 수확 후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모니』를 비롯한 다른 신품종의 과실 특성을 직접 비교하고 평가했다.
- 플럼코트 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나무 특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 플럼코트는 나무가 크게 자라는 성질이 있어 적어도 나무 심는 거리를 열간 6m×주간 6m 이상 유지하면서 넓게 심어줘야 한다. 또한 꽃 피는 시기에 온도가 낮을 경우 열매 달리는 양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착과량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
- 플럼코트는 과실의 성숙과 더불어 에틸렌 생합성이 증가하고 연화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모니』 품종은 꽃이 활짝 핀 80일 이후 껍질 착색이 약 30% 정도 진행되면 수확해야 한다.
- 평가회가 열리는 전남 나주 농가의 이완기 씨는 “올해 5년생 성목에 접어든 플럼코트 나무의 경우 2,000kg/10a 이상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과수와 남은영 농업연구사는 “플럼코트는 과실이 완숙한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유통과정에서 과실의 품질이 나빠져 정상적인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상온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완숙 전 분산수확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배 석세포』로 미세플라스틱 대체한다

- 천연소재인 배로 각질제거 화장품, 치약 개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생활 속 화학물질을 천연 소재로 대체하기 위해 배에서 버려지는 석세포의 각질 제거, 연마 등의 효능을 입증해 가공 소재로서의 우수성을 밝혀냈다.
- 배 석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게 굳어 고정된 조직으로, 배를 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물질이다. 주로 배 껍질이나 과일 중심부(과심)에 많이 있다.
- 국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등은 올해 7월부터 만들거나 수입할 수 없고 내년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치약제는 올해 5월 23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해 배 석세포 추출물로 피부 각질제거 효능과 치약의 연마 효과를 실험했다.
- 배 석세포 분말을 2~5% 첨가해 만든 피부 각질제거제는 일반 세정크림보다 4.6배, 호두껍질 각질제거제보다 2.2배 높은 각질 제거 효과가 있었다. 호두껍질은 기존에 천연 연마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마찰력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 치약의 연마 효과에 대해 실험한 결과, 배 석세포 분말이 5% 첨가된 치약은 일반 치약에 비해 2.4배, 프라그 제거 치약에 비해 1.8배, 호두껍질 치약에 비해 1.6배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 석세포는 활용 용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앞으로 각질제거용 화장품이나 치약제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 각질제거용 화장품은 특허등록이 완료돼 현재 기술이전이 진행 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치약제는 의약 외품의 연마성분을 가진 새로운 원료 등록을 위한 안전성 시험을 내년부터 실시한 후 제품화될 계획이다.
-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배 단백질 분해 효소를 추출해 천연연육제와 소화제를 개발했다.
- 배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함량과 효능은 현재 천연연육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효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입증됐다. 또한 장시간 처리 시 기존 연육제에서 나타나는 고기가 물러지는 부작용이 없었다.
- 배 천연소화제는 단백질 분해 능력(196.5mU)이 파파야를 원료로 한 천연소화 보조제(88.6mU)보다 우수했고 상업용 소화제의 72~98% 수준이었다. 향산화 능력과 아질산염소거 능력도 높아 소화 촉진을 위한 건강 보조제로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 천연연육제와 천연소화제는 2017년 4월 특허출원됐으며 특허가 등록된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될 예정이다.
- 이번 연구성과는 배의 천연소재를 이용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가공 소재로 한계를 보였던 배 가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배의 비 상품과나 가공 부산물이 고부가 식품소재로 확대 보급된다면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여 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젖소 더위 스트레스 해결하는 영양제 나왔다

- 아미노산계 영양첨가제... 고온에도 잘 먹고 우유생산량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젖소의 더위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우유 생산성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를 개발했다.
- 가축 가운데서도 땀을 적게 흘리는 젖소는 더위에 특히 약하다. 바깥 기온이 27℃ 이상 오르면 호흡수 증가와 함께 사료섭취량 7~12% 감소와 우유생산량 20~30% 감소를 준다.
- 농촌진흥청은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 메티오닌과 레스베라트롤, 비타민E, 등을 유효성분으로 아미노산 계열의 젖소 더위 스트레스 저감용 영양첨가제를 개발했다.
- 필수아미노산과 항산화물질, 무기질, 에너지 대사 개선물질 등을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유 생산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이번에 개발한 아미노산계 첨가제는 산업체 기술이전을 마무리했다. 농가에서는 7월부터 구입 가능하다.
- 한편, 여름철 젖소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영양적 방법 외에도 송풍, 안개분무, 그늘막 등 환경적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집중호우, 축사와 가축분뇨 관리요령 제시

- 깔짚 교체 피하고, 분뇨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턱 설치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집중호우기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축사 관리요령을 소개하고 점검을 당부했다.
-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큰 비가 예상되는 집중호우기간(6월 중순~7월말)은 축사 지붕과 시설의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 손상된 곳으로 들어오는 빗물은 내부 습도를 높여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되고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축사는 가축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수리한다.
- 깔짚 교체는 피하되, 먹이와 물을 주는 곳인 급이구, 급수대 근처의 깔짚은 마른 상태가 유지되도록 자주 확인해 보충·교체한다.
- 분뇨를 저장하는 곳과 퇴비장은 물 빼는 도랑인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빗물에 가축분뇨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빗물이 들어갈 경우, 높은 습도로 병원성 세균 번식이 왕성해지고, 웅덩이는 모기 애벌레의 서식지가 돼 가축에 2차적인 질병 피해를 줄 수 있다. 물 빠짐 시설을 정비하고 방수 자재(원치커튼, 비닐)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비가 잦아들면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환기하며, 내부 습도를 낮춰준다. 비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축사 내 깔짚은 교체한다.
- 가축분뇨 저장시설도 환기를 통해 습도를 40~60% 수준으로 낮춰주고, 각종 기구를 햇볕에 소독해 장비가 삭지 않도록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전남도, 양배추 추대 피해 복구비 12억 지원

- 해남·진도 438ha 발생...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비 등 혜택 -

- 전라남도는 해남·진도지역에 양배추 정식(모종 옮겨심기) 후 2월 중순과 3월 중순 사이에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대(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는 현상) 피해가 발생한 442농가에게 11억 5천 7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복구비 지원은 양배추 정식 후 5월 중순께 추대가 발생한 현상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현장조사를 의뢰한 결과 생육 초기 저온에 따른 농업재해로 판단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을 적극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 양배추 추대 피해는 해남과 진도지역 438ha의 면적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남 재배 면적 776ha의 57% 수준이다. 피해 농가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한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와 도비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가뭄 대책 특별교부세 58억 추가 확보

- 시·군 관리 저수지 180곳 준설 등 항구적 대책 추진 -

- 전라남도는 2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해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을 통한 항구적 가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는 6월 23일 저수율 30% 미만인 시군 관리 저수지 준설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가뭄 대책비 지원을 건의했다.
- 그 결과 14개 시군 180개소 저수지 준설을 할 수 있는 5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 이에 따라 65만 3천㎡의 저수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앞으로 가뭄 대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가뭄 대책비 197억 2천 200만원을 들여 신안·무안 등 가뭄 우심 시군에서 관정 개발, 배수로 준설, 하상 굴착, 저수지 준설 등 긴급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다.
- 6월 30일에는 시군 가뭄 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이어 7월 3일부터 가뭄 대책비 집행 실적 및 추진 상황 시군 현장점검에 나서 가뭄 극복을 위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뭄대책 지원사업 현장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 올해 추경에 42억원 추가 확보... 화재폭염 등 피해 보상 -

- 전라남도가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가축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 도모를 위해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이번 도 추경에 확보해 4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 가축 재해보험은 한우·소·돼지·닭·오리 등 16종의 가축과 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고, 월 단위 가입도 가능하며, 가입 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5개소다.
- 재해보험에서는 풍재, 수재,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등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입금액 한도에서 시가의 60~100%를 지급한다.
-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가입 희망 농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가입 시기가 하반기인 농가의 경우 지원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부터 소급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 통신판매, 민·관 합동 부정 유통 감시단 출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6월 29일(목) 농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농식품 통신판매 부정 유통 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감시단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행태가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쇼핑, TV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통한 구매방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농식품 통신판매상의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게 되었으며,
-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농관원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등은 농식품 통신판매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농관원은 적발사례와 단속방법 등을 포함한 업무매뉴얼의 체계화, 수입·가격정보 분석을 통한 위반 개연성 높은 품목 선정·제공, 통신판매 명예감시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 소비자단체는 자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감시단을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민관 합동점검을 하기로 하고,
- 생산자단체는 생산·판매과정에서 습득한 국산 농·축산물의 외관적 특징이나 품위상태 등의 자료를 단속원에게 제공하여 원산지 육안식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 통신판매 되는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ha당 84만원 총 13억 4,600만원... 2ha 한도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 지원에 나선다.
-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16년도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가에 경영안정 대책비로 13억 4,6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금액은 ha당 84만원으로 2016년 0.1ha이상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최대 지급한도는 2ha다.
- 공무원,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자, 벼 재배면적이 1ha 이하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 시는 2016년도 3,739명의 농업인에게 13억원 상당의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한 바 있다.
-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061-659-4415)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배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여러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담양군, 생으로 먹는 단옥수수 『고당옥』 신소득 작목 육성

- 담양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단옥수수 『고당옥』 품종을 신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한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관내 7개소에서 고당옥을 재배, 지역적응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고당옥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당옥은 당도가 일반 찰옥수수 보다 2~3배 높고, 풋내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낱알 껍질이 얇아 과일처럼 생으로 먹어도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고 찌도 달콤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도 적합하다. 특히, 일반 옥수수에 비해 키가 작아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고, 출사일수가 60일 내외로 2기작도 가능해 양파나 마늘의 전·후작으로도 재배하기에 좋다.
-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당옥은 수매가격 또한 높아 시험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곡성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교육 실시

-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친환경인증 및 잔류농약검사 중요성 알려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6월 28일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생물방제 연구센터에서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 및 잔류 농약검사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이론 수업 40분, 현장견학 40분, 총 80분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 군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발달을 도모하고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총 사업비 7억원 규모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및 34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학교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공급의지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및 식재료비 지원 등 학교 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화순군, 명품농산물 생산 찾아가는 영농교육 성황

- 13개 읍·면 102곳에서 2,200명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해 여름철 현장 영농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영농기술교육은 6월 19일 시작해 8월 11일까지 관내 13개 읍·면 102곳에서 농업인 2천 2백여 명이 참여한다.
- 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벼·고추·콩·참깨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실천해야 할 핵심 영농사항을 교육한다.
- 이번 교육은 읍·면 상담소장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저비용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 생육 단계별 핵심 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 영농현장에서 좌담회를 통한 토론식 교육이 특징이며, 품목교육은 시설고추·GAP·복숭아·흑염소 과정이 개설돼 운영되며 교재와 수강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 읍·면별 순회교육을 통해 32회 진행돼 671명이 수료했고, 품목별 교육은 대추방울토마토 수경재배과정이 1회 진행돼 18명이 수료하는 등 현재 총 33회, 689명이 수료했다.
- 자세한 일정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 (061-379-5453) 하면 된다.

* 출처 : 화순군

■ 영암군, 친환경 축산을 위한 조사료용 청보리 종자 매입

- 영암군에서는 친환경 축산을 위한 2017년산 청보리 종자 매입에 나섰다.
- 학산 신복촌 농협 창고에서 축산농가에게는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경종농가에게는 겨울철 유희지를 활용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2017년산 청보리 종자 매입을 실시한 것이다.
- 이번에 매입한 청보리 종자는 『영양보리』 품종으로 학산면 용산리 및 금계리 일원에 15ha의 채종단지를 조성, 여기서 나온 종자 1,348포를 전량 매입했다. 매입된 종자는 9월 중에 51개 조사료 경영체를 통해 청보리 재배 희망농가에 전량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청보리는 몸통(보릿대)과 잎, 알곡 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충체보리』로도 불린다. 청보리를 발효시켜 유기농 가축사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비를 절감하고 농한기인 겨울철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고품질 한우까지 생산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출처 : 영암군



■ 무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용 대폭 경감키로

- 무안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편의제공을 위해 T/F팀을 구성, 축산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박준수)과 건축사회 무안지회(회장 정정진)는 6월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건축설계비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 무안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 행정 처분이 시행되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시설 적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법 및 조례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경감(80% 내외)하고, 건축사회 무안지회와 건축 설계비를 3.3㎡당 3만원에서 1만 3천원으로 감면(56%)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은 적법하게 설치하고 처리시설은 용도를 변경했거나 설치하지 않은 시설을 비롯해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국유지(도로, 구거)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무안군은 T/F팀을 구성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조치와 이행강제금 감면, 설계비 감면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무안군

■ 함평군, 광명시 광명동굴 『복분자와인』 입점 업무협약 체결

- 함평군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인 복분자와인을 대한민국 관광 명소인 광명동굴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6월 29일 광명동굴 와인레스토랑에서 광명시와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명동굴은 103년 역사의 폐광산을 개발해 2015년 개장했으며, 국내 최초 동굴관광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전체 길이 7.8km 중 2km 구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4m 규모로 와인동굴을 조성해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한국와인 175종을 판매하며 한국와인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만 142만여 명이 이곳을 찾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함평 복분자와인은 타 지역보다 당도가 높은 함평산 복분자를 엄선해 만든 것으로 풍미 있고 감미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분자와인 등 함평군의 지역 특산품을 광명동굴에서 판매하고 문화·관광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키로 했다.

* 출처 : 함평군



■ 영광군, 신소득원 『백(白)초당옥수수』 수확이 한창

-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 백(白)초당옥수수 수확이 한창이다. 초당옥수수는 이름 그대로 『당도가 높은』 옥수수로 수박이나 멜론과 당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16°Brix 수준을 나타낸다.
- 국내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가 이뤄졌지만 아는 사람들만 즐겨 찾다가 올해 들어 판로가 확대되며 대중화되고 있다.
- 특히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백(白)초당옥수수는 초당옥수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당도와 아삭함을 자랑하며 고급스러운 단맛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더욱 타고 있다.
- 기존 찰옥수수의 경우 껍질을 제거한 후 약간의 간을 해 15분에서 20분간 쪄 먹어야 하지만, 초당옥수수는 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다. 간편하게 간식 또는 식사하기 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를 얻는 이유다.
- 여름의 제철 식품중 하나인 옥수수가 최근 다시 주목받게 됨에 따라, 군은 차후년도에 생식용 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소득대체작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영광군



9. 해외 농업정보

◆ 수출용 우량 감자 신품종 공동평가로 수출산업 활로 연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6월 28일 고령지농업연구소 강릉시험지에서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기 위해 육성한 가공용 감자품종에 대한 현장 평가회를 실시했다.
- 중국·베트남 등에서는 감자칩을 비롯한 가공용 감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자 가공업체들도 현지에 진출하여 감자칩을 생산하고 있다.
- 국내·외 가공용 감자는 미국에서 육성된 『대서(아틀란틱, Atlantic)』 품종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수확기에 온도가 높아지면 감자 속이 비거나 반점이 많이 생기고, 겨울에 감자를 재배하는 베트남 등에서는 수확기에 감자가 쪼개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현장 평가회는 감자 가공업체, 씨감자 생산업체, 감자 육종기관 및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감자 품종별로 감자칩, 회오리 감자와 같은 가공품과 함께 식미와 내부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찢감자 등을 제공했다.
- 또한 강릉시험지 현장에 자라고 있는 해당 품종 감자의 지상부 생육과 감자 덩이줄기 특성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 농촌진흥청 골든시드프로젝트의 하나로 칩 가공용으로 유망한 『고운·남선·은선』과 역병에 강한 『금선·강선』 등을 육성했다. 2019년 국산 우량감자 신품종 수출을 목표로 국내 재배지 적응성 검정과 수출 대상나라에서 국내 가공업체와 함께 재배 적응성 및 가공적성을 검토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마늘 규제 시행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산 마늘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연내 수입 마늘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실시할 예정임
- 엥가르띠아스포 루끼따 무역부 장관은 수입마늘의 품종과 양 등을 규제할 예정이며 농업부가 승인한 업체에 한해 마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수입마늘 구매 희망 업체는 구매금액과 재고량을 농업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는 매년 약 45만톤의 마늘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인도·미국·말레이시아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올해 연초부터 마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5월 유통되고 있는 마늘의 소비자 가격은 1kg당 약 50,680루피아(약 4,323원)로 1월 대비 31.5% 상승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늘 1kg당 적정가를 38,000루피아(약 3,218원)로 규정하고 향후 3만 루피아까지 인하할 예정임
-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은 마늘의 국내 경지면적은 총 2,000ha로 연간 생산량 20만톤은 국내 수요량 50만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밝힘
- 조코위 정부의 식품 자급자족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마늘의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아니지만 향후 기타 신선농산물까지 수입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7. 03.(시카고 선물거래소)

□ 전일에 이어 다시 크게 상승한 밀·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 밀 선물시장 시황(▲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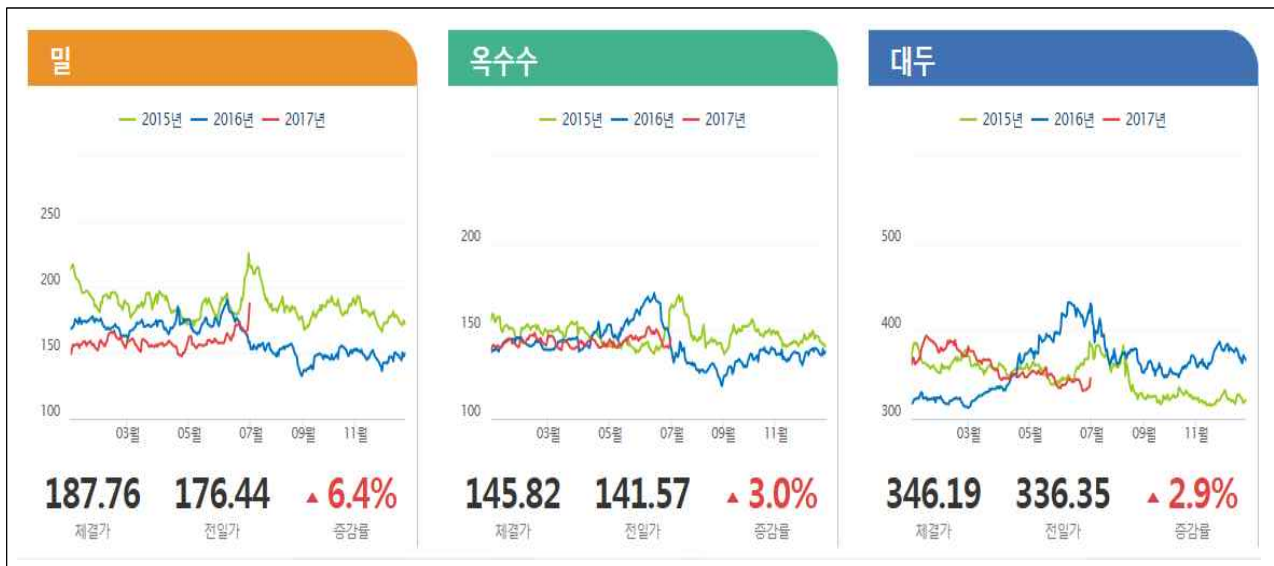
- 밀 선물 가격은 미국과 캐나다의 봄밀 작황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면서,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며 전일대비 6.4% 상승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3.0%)

- 옥수수 선물 가격은 대두 선물 가격의 흐름을 따라 약 3%의 상승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시황(▲2.9%)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약 3% 상승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7국제농업박람회를 소개합니다

□ 2017국제농업박람회 개요

- 행사명 : 2017국제농업박람회(2017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 개최기간 : 2017. 10. 26(목) ~ 11. 5(일) / 11일간
- 개최장소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전남 나주시 산포면)
- 주제 :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행사규모 :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 관람객 45만명
- 사업비 : 59억원(국비 18, 도비 26, 자체 15)
- 주최 : 전라남도
- 주관 : (재)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
- 행사구성 : 5개 마당
 - 농품마당, 혁신기술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홍보판매마당

□ 2017국제농업박람회 준비상황

- (농품農風마당) 관람객, 학생들의 농업 이해 증진 및 인식전환
- (혁신기술마당) 농업인,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농업정보 제공
- (전시체험마당) 농작물 수확체험 및 전시를 통한 관람객 교육
- (상생교류마당)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농업을 통해 소통과 화합
- (홍보판매마당) 지자체, 단체, 업체의 농산물·식품 홍보 판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2017국제농업박람회를 소개합니다♡

FUNFUN PROGRAM

세상을 바꿀 편편(FUNFUN)한 프로그램 구성



농풍마당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바람, 농풍"



혁신기술마당

"첨단농업,
기술에 담긴 미래"



홍보판매마당

"국제박람회의 위상,
국내·외 비즈니스의 장"



상생교류마당

"농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



전시체험마당

"생명의 공존,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의 삶"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총 4종 발간

□ GAP 생산가이드 : 인삼·배·단감·참외·착색단고추 편 5종 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배 등 5작물의 농업인용 『GAP 생산 가이드』를 제작·보급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급한 『GAP 생산가이드』의 대상작물은 인삼·배·단감·참외·착색단고추(파프리카) 등 5종이다.
- 『GAP 생산가이드』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의 개념, 재배부터 수확 후 단계까지 주요 GAP실천 사항, GAP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었다.
- 농업인이 GAP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여 GAP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주요 작물 총 30종의 『GAP 생산가이드』 책자를 제작·보급하였고, 금년에는 주요 수출 작물인 배·단감·참외·착색단고추(파프리카)·인삼의 『GAP 생산가이드』를 제작·보급했다.

□ 생활주변 잡초도감 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주말농장(텃밭)이나 아파트 화단, 도로변 등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잡초의 이름과 방제방법을 소개하는 『생활주변 잡초도감』을 발간했다.
- 도시민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조 표본 32종과 주요 잡초종자 120여종을 같이 포함했다. 이 사진정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발간도서) 누리집에서 e-Book으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 스마트온실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 책자는 온실환경관리이론, 작물별 환경관리가이드라인, 환경관리 가이드 요약, 총 3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 2016년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다룬 토마토·파프리카·딸기·오이·국화·호접란 등 6작물에 수박·포도·장미·아이스플랜트의 환경관리 방안을 추가했다.
- 개정판 스마트온실환경관리 가이드 책자는 시설원예농가와 대학,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http://lib.rda.go.kr>)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 사료작물 IRG 신품종과 친환경 재배 이용 기술서 발간

- 국립축산과학원이 그동안 개발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이하 IRG) 새 품종과 친환경 재배 이용기술을 묶어 책자로 발간했다.
-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041-580-6753)로 신청하면 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 농진청 발간자료 → 주요 발간도서)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으로 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출처 : 농촌진흥청

◆ 작은 더위, 소서(小暑)

- 24절기 중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夏至)와 대서(大暑) 사이에 든다. 음력으로 6월, 양력으로는 7월 5일 무렵이며, 2017년은 7월 7일이다.
- 소서는 『작은 더위』라 불리며,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 중국에서는 소서 무렵의 15일을 3후(三候)로 나누었는데,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소서는 6월의 절기로 초후(初候)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차후(次候)에는 귀뚜라미가 벽에서 살며, 말후(末候)에는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 이 시기는 여름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 뒤 소서 때에 논매기를 했다.
- 이때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 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다.
- 『소서 때는 새 각시도 모 심어라』, 『소서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달려든다』라는 속담은 이때 농촌에서는 논매기 등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 아닌가 싶다.
- 소서에는 제철 과일이나 야채가 많이 나고, 밀과 보리도 이때부터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수 음식뿐만 아니라 수제비 등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4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